

영원한 인성인 ^~^



교장 채종숙

이제, 인성을 떠날 때가 되었나 봅니다. 저는 2015년 8월 31일자로 정년퇴직을 하게 되니 말이죠. 제가 어려서 인성여중에 들어오게 된 것은 집안 형편이 어려워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1966년 인성여중에 입학하여 1969년 인성여중 졸업. 1969년 인성여고에 입학하여 1972년 인성여고를 졸업할 때까지 6년을 장학금을 받으며 다녔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요. 대학 4년 보내고 인천 광성 중학교에서 교사로 2년 근무한 뒤, 다시 1978년에 인성여고 교사로 왔으니 학창시절까지 합하면 42년 6개월을 인성에서 보낸 것입니다. 돌아보면 정말로 인성에서 인생의 긴 꿈을 꾸고 일어난 느낌입니다.

제가 살아오는 동안 만난 많은 훌륭한 선생님들이 저를 이끌어 주셨지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초등학교 6학년 담임선생님이 인성으로 가도록 조언해 주셨고, 중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은 신앙생활의 멘토가 되어 주셔서, 제가 내리교회를 나가게 된 계기가 되었지요. 무엇보다 고3때 담임선생님!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아버지 같이 늘 좋은 길로 이끌어 주셨어요. 대학 들어가서도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봐 주시는 등, 제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셨지요. 지금은 그분 사모님과 연락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학창 시절에 만나는 선생님과 관계가 매우 돈독하지요. 그 철없는 시절에 만나는 선생님들은 멘토로서 매우 큰 역할을 하십니다. 저도 고1때 수학선생님의 영향으로 수학과로 진로를 선택했지요. 친구와 수학 선생님 덕도 자주 방문 하였고, 선생님께서 이화여자대학교를 구경시켜 주셨었어요. 그때 그 대학에 한눈에 사로잡혀 결국 수학과를 가게 되어 그 선생님의 후배가 되었지요. 은퇴 후에 시간을 내어사라도 그 수학 선생님을 꼭 찾아뵙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또 저는 수많은 교우들과 친구를 맺으면서 살아왔어요. 동명초등학교 시절의 친구들, 인성여중,고 시절의 친구들, 이화여자대학교 수학과 친구들과는 몇 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만나며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만나며 인생을 같이 할 것입니다.

인성에서 근무하며 만난 교직원들도 내 인생에서 잊지 못할 인물들입니다. 정년 후에도 만나며 살아갈 사회의 친구들이지요. 그리고 수많은 인성의 제자들…… 사회 각계각층에서 만나는 졸업생이며 제자들을 볼 때 매우 자랑스럽기만 해요. 어느 때는 학교를 방문해 옛날의 이야기꽃을 피우며 격려해주는 제자들을 만나며 용기를 얻곤 합니다.

인성여고에서 교직생활을 하는 동안 1968년의 1학년 8반 담임을 맡았을 때인 것 같네요. 그때는 추수감사절 행사로 줄다리기대회, 배구대회, 독,중창대회, 성경퀴즈대회를 했는데, 우리 반이 모든 부문에서 우승을 해서 다른 반들이 시기했었지요. 줄다리기를 하는데 모든 반들이 다른 반을 응원하고 노골적으로 우리 반은 패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우리 반 아이들이 속상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모두 힘을 모아 줄을 열심히 끌

어당겨 결국 우승을 했지요. 우리 반이 알아줘서였던지 상대방이 그냥 줄을 놓아버려 우리 반은 모두 땅에 내뿜졌지요. 남어진 이름에다 속상함에 우승한 기쁨까지 아우려져 그야말로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2000년 1학년 부장을 맡았을 때도 기억이 남네요. 그 해 단체 활동을 강화도에 있는 국화리 야영장으로 갔어요. 날씨가 태풍이 온다고 하여 회의도 여러 번 하였고, 걱정도 많았지요. 극기훈련 프로그램으로 마나산을 등산하게 되었는데, 쉽게 끝날 줄 알았던 등산은 예상외로 고된 등반이 되었어요. 산에 오르는 데 슬리퍼를 신고 간 학생들도 있었고,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 예상하지 못했기에 물 길은 것도 준비하지 못한 상태였지요. 더구나 가파른 언덕과 거친 돌길에 능산마라도 안개로 자욱해 길이 안 보이기도 했지요. 정말 천신만고 끝에 한 사람의 낙오자도 사고도 없이 하산 하였고 이후에 학부모들의 비난도 없었으니, 지금 생각해도 마나산 등산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셈이지요.

이렇게 인성에서의 수많은 일들은 추억의 한 칸에 남겨두고 이제는 퇴직 후에 어떻게 살을 살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겠네요. 여러분들도 짧지만 긴 이곳에서의 3년 동안 소중한 추억들을 많이 만들기를 바랍니다.

